



광주바둑협회가 주최하고 (사) 대한바둑협회와 광주바둑협회가 주관, 광주시가 후원한 '제13회 광주시장배 아마바둑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광주 남구 문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아마추어 바둑인들, 광주서 뜨거운 '반상의 대결' 펼쳤다

‘제13회 광주시장배 아마바둑대회’ 성료

셋별부·성인부 등 20개 부문 총 500여명 참가 열기
상장 수여·연구비 지원…“바둑 인재 발굴 등 집중”

전국 아마추어 바둑인들이 광주에서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쳤다.

광주바둑협회가 주최하고 (사) 대한바둑협회와 광주바둑협회가 주관, 광주시가 후원한 '제13회 광주시장배 아마바둑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광주 남구 문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심신건강을 진작시키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광주가 스포츠 바둑 메카로 자리 잡자는 의미도 담겼다.

이번 대회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뉘 20개 부문에서 뜨거운 한판 대결이 펼쳐졌다.

성인부는 △일반부 (단체전) △시니어부 (단체전·65세 이상) △전국최강부 △지도자부 등으로 나뉘 치러졌다. 학생부는 △초등최강부 △초등유단자부 △저학년 (1~2년) 초급부 (15~20급) △저학년

중급부 (10~14급) △저학년 고급부 (1~9급) △중학년 (3~4년) 중급부 (5~9급) △중학년 고급부 (1~4급) △고학년 (5~6년) 중급부 (5~9급) △고학년 고급부 (1~4급) △여학생 초급부 (17~23급) △여학생 중급부 (10~16급) △여학생 고급부 (1~9급) △중고생 남·여부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지역 꿈나무들을 위해서 △셋별부 (21~25급) △꿈나무부 (10~20급) △유치부 등의 경기도 진행됐다.

대회는 총호선 방식으로 각자 제한시간 10분에 20초 초읽기 3회로 정해졌다. 덤은 6집 반이었다. 각 부문 예선 조별리그로 시작해 본선토너먼트를 치렀다.

개회날인 22일 대회장에는 500여명의 바둑인들이 몰리는 등 그간 대회 출전에 목말랐던 바둑인들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장계상 광주시바둑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바

둑은 인류가 개발한 그 어떤 스포츠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두뇌 스포츠다”며 “이번 대회에서 승부에 연연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즐기는 스포츠맨십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통해 바둑 인재 발굴과 학생 바둑이 더욱 확산되고, 바둑 동호인들의 화합과 꿈을 키우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회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대국이 시작됐다. 22일에는 학생부들이 예선리그를 치른 뒤 본선 토너먼트를 진행하며 승부를 가렸다. 이튿날 역시 학생부와 함께 성인부 기사들이 자웅을 겨룬 뒤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각 부문별 3위까지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됐다. 우수상에는 메달과 상

장이 전달됐다. 유단자부, 초등최강부, 중고생 남·여부 입상팀에게는 연구비 등 풍성한 혜택이 지원됐다.

대회 결과 △강자부 (광주중앙유치원·유치부) △최승호 (월봉초 5년·초등최강부) △조윤오 (신암초 5년·초등유단자부) △정민욱 (송원초 2년·저학년 초급부) △정은우 (만호초 2년·저학년 중급부) △이호진 (마지초 2년·저학년 고급부) △천호영 (운리초 4년·중학년 중급부) △홍은범 (일신초 3년·중학년 고급부) △이승준 (송원초 6년·고학년 중급부) △김도훈 (화정남초 6년·고학년 고급부) △조민서 (조봉초 3년·여학생 초급부) △윤나영 (불로초 3년·여학생 고학년부) △유재인 (조봉초 5년·여학생 고급부) △김세환 (문화중 3년·중고생부 (남)) △조은설 (정광중 3년·중고생부 (여)) 등이 우승을 차지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전남 유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원회인 '나눔과 동행'이 '2025년 나눔과 동행 정기 총회 및 후원금 전달식'에서 장애인체육 선수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나눔과 동행’, 광주장애인체육 발전 힘 보태

육상 김경원·배드민턴 이승후 각각 150만원 후원금 전달

광주·전남 유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원회인 '나눔과 동행'이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 광주장애인체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

24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상무지구 인근 식당에서 열린 '2025년 나눔과 동행 정기 총회 및 후원금 전달식'에서 장애인체육 선수 후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대상 선수는 김경원 (광주장애인육상연맹)·이승후 (광주장애인배드민턴협회) 다. 먼저 김경원은 이번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자 육상트랙 은메달 3개 (100m·200m·400m)를 획득했다. 이승후는 남자 단식 (SL3) 금메달, 남자 복식 (SL3·SL4) 은메달을 따냈다.

또 이번 전달식에는 골프 김은세 (순천 왕운중 3년), 검도 최현수 (순천 왕운중 3년), 검도 윤경훈 (장성고 2년) 등 광주·전남 체육 선수

를 비롯해 조성민 (조선대 미술대학), 김은세 (해남 산이중 3년) 등 일반학생까지 후원금을 전달 또한 진행됐다.

김명원 나눔과 동행 회장은 광주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 1~2기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체육 선수를 위한 후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나눔과 동행' 후원회와 '광주장애인체육회'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지난해 펜싱 선수 300만원, 올해 5월 육상 선수 300만원 후원에 이어 연말에도 장애인체육 선수 300만원 후원금 조성에 힘썼다.

김명원 회장은 “광주장애인체육회와 인연을 맺고 2년 연속 후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나눔과 실천의 설립 목적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체육·예술분야에 대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시체육회,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풍성’

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 등
종목 확대·생활체육 활성화

연말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며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제13회 시장배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 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 등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가 열려 동호인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22~23일 문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는 유치부와 학생부부터 시니어부에 이르기까지 500여명의 생활체육 바둑가들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뽐냈다. 또 22일 상무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에도 300명 넘는 동호인들이 참가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시체육회는 이달 들어 시체육회 주최로 개최한 제37회 광주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해 제7회 협회장배 패러글라이딩대회, 제9회 시장배 국무도대회, 제20회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제8회 협회장기 축구대회, 2025 회장배 유도대회, 2025 협회장배 야구·소프트볼대회 등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



최근 상무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댄스스포츠대회 등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하며 동호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주력했다.

또 임직원들은 매 대회 현장에 방문해 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일 경우에는 편의시설 개보수를, 학교 체육시설 등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시하며 동호인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종목별

지역 대회를 확대해 지속 지원하겠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스포츠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12월까지 궁도, 스쿼시, 태권도, 검도, 빙상 등 다양한 종목의 지역 대회 개최를 지원해 동호인들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기술·체력 훈련 집중…기량 발전 만족”

KIA, 마무리캠프 선수단 귀국

일본 오키나와에 마무리캠프를 차렸던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이번 마무리캠프는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기술훈련 등 기본기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2026년 신인선수 중 야수 3명이 참가해 프로 무대에 데뷔하기 위한 담금질을 마쳤다.

이번 캠프에는 코칭스태프로 새롭게 합류한 김지웅, 고영민, 김연호, 타카하시, 나이트 코치가 합류해 선수단을 지도하며 호흡을 맞췄다.

이번호 감독은 “어느 해보다 훈련량이 많은 마무리캠프였는데 모든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훈

련을 잘 이겨내줘 만족스러웠다. 기술훈련과 함께 러닝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체력 강화에 힘썼다”며 “오선우와 한준수 등 1군 경험이 비교적 많았던 선수들의 기량이 더욱 발전했고, 신인선수로서 이번 캠프에 참가한 김민규, 박종혁, 한준희도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김규성이 캠프 주장으로서는 선수단 분위기를 밝게 잘 이끌어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수고 많았고, 지금의 훈련량이 헛되지 않게 비시즌을 잘 보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